

# 고용 없는 성장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 머리말

최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단어를 신문지상에서 접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학계의 논의나, 심지어 그 실재(實在)에 대한 갑론을박보다는 대량실업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정의와 실제 현실에서 관찰되는 현상,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화 및 기계화가 실제 미래에 대량 실업을 양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 ■ ‘고용 없는 성장’의 정의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가 활성화 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난다.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기업에서 더 이상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거나 인력 감축을 시도함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반대로, 반면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주로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관찰된 것은 1990년에서 1991년까지의 미국 경기침체였다. 이 경기침체 직전 미국 경제의 실업률은 약 5%대 초반이었지만 1991년 6.8%, 1992년 7.5%까지 치솟은 이후 5%대 초반의 실업률로 재진입한 것은 1995년과 1996년에 이르러서였다. 경제학자 Nick Perna는 이 현상을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으로 지칭하면서 경기회복기에도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미국 경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2001년에 있었던 경기침체로 인해 2000년 4%에서 2002년 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다시 4%로 돌아온 시기는 6년이 지난 2006~2007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2007년의 실업률로 돌아간 것은 2017년으로 무려 9년이나 걸렸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는 국면에서도 실업률이 빠르게 낮아지지 않고 고용이 줄어드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고용 없는 경기회복’ 혹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도성장기 혹은 호황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기에는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장기 성장률과 실업률이나 고용률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양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다. 또한 경기침체기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정확한 사실은 ‘미국에서 경기침체 이후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기보다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줄어드는 현상이 1990년 이후 나타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최근 경제학자들에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은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경기 회복’보다는 ‘고용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2014년 6월 국제통화기금의 Christine Lagarde가 했던 아메리카 국제경제포럼(The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of the Americas)의 기조연설에서 등장하는 ‘고용 없는 성장’은 이러한 용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기조연설에서 Lagarde는 경기회복과 연결짓고는 있지만,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세계적인 호경기에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는 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고용 없는 성장을 경기와 무관하게 앞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기계화와 자동화 및 무인화로 인해서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혁명기와 대공황 시기에도 등장했던 것이다(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미국과 한국에서의 실업 및 고용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아직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호황기에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불황기에는 올라가고 있으며, 호황기의 실업률이 과거에 비해서 높거나 고용률이 낮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이 전 기간에 걸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불황에서 회복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성장에 수반하여 고용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앞에서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실재(實在)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보이는 경제현상은 관찰되고 있지만, 이것이 추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지 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고찰해 볼 수는 있다. 설령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존재하



지 않는다 해도 고용증가가 현저히 느려 보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꼽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자동화이다. 기계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는 자동화는 궁극적으로 무인화 혹은 극소수의 인력만이 배치된 생산현장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아마존의 무인 점포인 ‘아마존고’의 등장을 비롯한 일련의 무인화 시도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실 아마존고에는 상품 구매를 돕거나 안내하는 점원이 있으며, 물류 수송 및 배치는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무인 점포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경제가 성장함에도 고용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퍼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동화나 무인화가 해당 작업환경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화나 무인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인력과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의 고용증가를 고려했을 경우, 경제 전체에서 자동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William Easterly를 비롯한 일군(一群)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을 자동화에서 찾거나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 자동화나 무인화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주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산업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학자들은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노동력이 서비스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과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산업혁명 이후 2차 산업으로 노동력이 다수 이동했던 것처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력이 재배치되는 것은 경제성장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며 과거에 습득한 기술을 바로 적용하거나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재교육 및 재탐색의 과정에서 일자리가 바로 채워지지 않거나 혹은 기업은 마땅한 인력을 찾지 못하므로 쉽게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실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Easterly, 2001; Groshen and Potter, 2003). 다시 말해서 전체 일자리 수요는 늘어났음에도 수요가 바로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통계상 관찰되는 고용량은 실제 수요보다 작게 나타남에 따라 마치 경제가 성장하

거나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고도화된 직군 일수록 요구되는 능력치가 높음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므로 해당 일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원인을 산업 집중에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리의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에서 창출되는데, 대기업 및 거대 자본으로의 산업 집중이 심해지면서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대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이로 인해 매출당 고용이 많은 중소 자영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인력을 매출당 고용이 적은 대기업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자동화와 연결된 주장인데,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을 적게 채용한다는 사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이유가 규명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고용은 단순히 경제상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규제, 경제의 개방 정도 및 이민정책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산업에서의 전문인력 부족과 단순 업무 종사자들의 실직이 관찰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일치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의 실직 인력이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교육 및 학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실업이 문제가 되는 현상이 한동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양극화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사안은 일자리가 양극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심한 임금 및 소득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우려이다. 기계에 의해 중숙련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다수의 실직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존재해야 하며, 따라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노동경제학자들은 자동화에 의해 일자리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는 중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저숙련 및 고숙련 일자리는 적었던 반면, 앞으로는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지속될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도 많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David Autor는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한히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utor, 2013; Autor, 2015). 미래에도 중숙련자를 위해 업무와 적당한 수준의 자동화가 결합된 형태의 직업군이 계속 등장할 것이며, 그 수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Autor는 보고 있다. 더하여, 실업의 증가에 따른 임금 감소 및 이로 인한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 변화가 노동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Autor는 일자리 양극화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Autor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ECD에서 2018년 3월에 펴낸 보고서(Nedelkoska and Quintini, 2018)에는 직업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한국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직업 대체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론 직업 대체율이 낮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화율을 보이면서도 낮은 대체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일단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난망(難望)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단기적으로 일자리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한동안 지속될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자칫 임금 및 소득의 양극화, 궁극적으로는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내의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에도 자동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중숙련 일자리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관건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다.

## ■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한국은 기계 도입 및 로봇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 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고용 없는 경기회복 및 성장이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났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결책으로 자동화 및 기계와 로봇의 도입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막는 것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해당 기업의 근로자와 궁극적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일자리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자동화 및 기계화에 따라 기존의 직업군 중 일부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숙련 기술 직종에서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도 중·저숙련 일자리의 수는 늘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이렇게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일치이다. 새로운 직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반면, 중·저숙련 노동자는 실직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숙련 직종을 저숙련 노동자들이 실직 후 바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아울러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중숙련 노동자들이 자칫 심각한 소득감소 등을 경험하지 않거나 필요한 영역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실재(實在)하든 아니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에 실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그 우려는 사라지지 않거나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고용 없는 성장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KLI**




---



---

참고문헌

---



---

- Autor, David H.(2013), “The ‘Task Approach’ to Labor Markets: An Overview,” *Journal for Labour Market Research* 46(3), pp.185-199.
- Autor, David H.(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pp.3-30.
- Easterly, William(2001),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Economists'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in the Tropic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pp.53-54.
- Erica L. Groshen and Simon Potter(2003), *Has Structural Change Contributed to a Jobless Recover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Joel Mokyr, Chris Vickers, and Nicolas L. Ziebarth(2015), “The History of Technological Anxiety and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s This Time Differ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pp. 31-50.
- Nedelkoska, Ljubica and Glenda Quintini(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